

신안군, 해저유물박물관 건립 '속도'

군,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등 연내 기본계획 수립 증도 앞바다·흑산도에서 발견된 해저유물 전시·관리 국립광주박물관과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한 업무협약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해저유물 등을 전시할 신안군의 박물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등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안해저유물박물관에는 증도 앞바다와 흑산도 등에서 발견된 해저유물 등이 전시·관리된다.

군은 현재 중국 도자기 50여 점이 발견된 흑산도 해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중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의 해저유물박물관 건립사업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안해저유물 1만 7000여 점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을 결정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신안군을 비롯한 군의회와 전남도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안에서 발견된 해저유물의 '지역 이관'과 전시·관리할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안군과 국립광주박물관은 신안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박물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신안 해저유물박물관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신안에 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유물의 대여 등 협약을 통해 전시가 가능토록 협조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975년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인양되기 시작한 신안해저유물은 9년간 11차례에 걸쳐 송원대 도자기 등 2만7000여 점에 이른다.

선박은 도자기의 양식과 동전의 글자, 칠기의 간지명, 목간의 내용 등으로 미뤄 1331-1350년께 침몰한 중국 목선으로,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현재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 복원된 신안선의 선체와 도자기 일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도자기 등이 분산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립광주박물관과 긴밀한 협의 속에 신안해저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신안 증도나 다른 어느 곳에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교육청 '함평Wee센터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지난 18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9. 함평Wee센터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루고자 함평교육지원청 Wee센터를 비롯해 함평경찰서, 함평군청, 함평청소년문화의집,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관내 9개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서비스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안내하고, 위기 학생과 가정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김영길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실무자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신학기 상담 주간 상담체제 부스 'I-You만 나기', Wee클래스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 학부모 심리검사체제 '설레임' 심리카페(27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포근한 겨울' 무안 양파 노균병에 '시들시들'

잎 연두색 변하고 말라 죽어 약제 살포 등 대책 마련 시급 올해 수확량 최대 30% 감소

대표적 양파 주산지 무안에서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고 고사하는 노균병(사진)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겨울철이 비교적 따뜻한 현경면, 운남면 해안가 일대에 중

심으로 최근 노균병이 퍼지고 있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2.5℃로 전년(영하 0.1℃)보다 높고 평균 강수량도 다소 많았다. 2월 낮 최고기온이 10℃ 이상인 날이 5일 이상으로 노균병 감염 시기가 빨라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노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전

제로 전염되면서 5~30%까지 수확량이 감소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노균병이 관찰되면 침투이행성 약제를 1~2차례 살포해 2차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원을 제거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보호형 약제를 살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영광군, 산불발생 제로화... 교육 등 예방 총력

영광군이 예방 교육을 통해 산불 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 소속 전문 강사(김종수·이세관)를 초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실습과 산불진화방법, 단발기 사용 방법,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된 이날 교육은 각 읍·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산

불예방수준 중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상황파악 및 보고요령, 산불진화방법 등 실제상황에 맞춰 이뤄졌다. 또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과 농경지에서 불을 피우는 주민에 대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설득·제지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과 토론 형식으로 교육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목무신축협,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목무신축협의 장학금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이다. 조합원수가 1900여 명이 넘는 목무신축협은 축산물 판매와 배합사료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숙원사업이었던 TMF사료 공장 신축이설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생축사업자 증축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1994년에 설립돼 군비 출연금과 기부금 등 10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84명에게 17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공립 전환' 함평 손불어린이집 개원

함평군 손불어린이집이 최근 개원식을 갖고 공립 어린이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손불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공립 손불어린이집은 연면적 468㎡(지상 2층) 규모에 보육실, 조리실, 원주실, 교재교구실 등을 갖췄다. 함평군은 지난달 21일 체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임대 협약 및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손불어린이집을 오는 2029년까지 10년 간 무상 임대해 운영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말 국·도비 9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 58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와 비품, 교재, 교구

등 기자재 구입을 마쳤다. 특히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린이집 내부 1, 2층에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군은 석면 철거공사비 18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썼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함평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이 결국 지역발전"이라며 "올해 말 공립전환을 앞두고 있는 신광어린이집을 비롯해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수준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